

2019.8월 제10호

BLOCKCHAIN 동향과 이슈



CONTENTS

이슈 리포트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회원사 동향



BLOCKCHAIN 동향과 이슈

2019.8월 제10호

CONTENTS

이슈 리포트	2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16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30
회원사 동향	61

※ 「BLOCKCHAIN 동향과 이슈」는 본 협회 협력사인 '코인니스(Coinness)'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슈 리포트

- 좋은 블록체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 ‘폭격’ 맞은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
(미국 상하원 청문회 종합)

한국블록체인협회

좋은 블록체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 노더X코인니스 7월 8일자 이슈리포트 - 체인에듀 조원규 대표

김연아 선수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피겨스케이팅은 빙판 위에서 여러 가지 동작으로 기술의 정확성과 율동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빙상경기의 한 종목이다. 김연아 선수의 활약으로 한국에서 피겨스케이팅 붐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피겨스케이팅은 어떤 부분을 평가해서 우위를 판가름하는 걸까?

각 종목별로 프로그램당 점프·스핀·스텝 등을 평가하는 기술 점수(TES)와 프로그램 구성 점수(PCS)를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데, 쉽게 말해서 기술 점수와 예술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기술 점수, 예술 점수가 각각 매우 높아도 순위권에 올라갈 수 있지만, 우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뿐만 아니라 연기, 안무 구성, 음악 해석력 등 예술성 측면에서도 우수해야 한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다. 기술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요소가 두루 충족돼야 좋은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블록체인 메인넷을 평가하는 기준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 많이 생겨나면서 본인의 메인넷 기술을 어필하며 자금을 모집(ICO, Initial Coin Offering)하거나 프로젝트들을 홍보하고 있다. 메인넷은 독립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스마트 계약 적용 여부, 신기술(인터체인, 사이드체인 등) 적용 여부, 트랜잭션(거래) 속도 등 다양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암호화폐 사용자,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메인넷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짧은 시간 안에 블록에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트랜잭션 속도, 그리고 블록체인이

탄생한 배경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인 탈중앙화 정도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TPS :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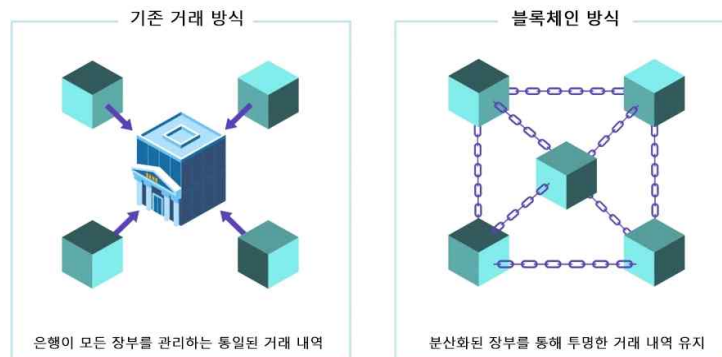
TPS란 Transaction Per Second의 약자로,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만 TPS란 1초당 1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여기서 트랜잭션은 한국어로 거래내역이라고도 하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업무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트랜잭션은 물건을 구매한 뒤 돈을 지불하는 일상적인 의미의 거래와는 다르다.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트랜잭션은 지갑 간 암호화폐의 이동을 의미하며, 블록체인에 담는 데이터(암호화폐도 사실 다양한 데이터 중 하나다)를 가리키기도 한다.

비트코인은 7TPS

블록체인은 트랜잭션(거래내역)이 담긴 블록들을 체인처럼 엮어서 데이터를 보관하는데, 블록체인 참여자들의 승인을 거친 트랜잭션만이 블록에 저장된다.

블록은 하나의 거래 장부로,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생성된다. 암호화폐의 종류에 따라서 블록의 크기와 생성 주기가 달라지는데, 그 결과로 결제 처리 속도가 결정된다. TPS는 하나의 블록에 저장되는 트랜잭션 개수에 블록 생성 주기를 나눈 값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들의 TPS는 얼마 정도 될까?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TPS 계산 방식을 알아보자. 비트코인의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은 10분(600초)이다. 블록 크기는 1메가 바이트(Mbyte)이며 이는 1,048,576바이트(byte)이다. 트랜잭션 한 개의 용량은 약 250 바이트이기 때문에, 한 블록에 약 4,200건을 저장할 수 있다.

이값에 생성 시간을 나누면, $4200\text{건}/600\text{초} = 7\text{ TPS}$ 가 된다. 가장 널리 쓰이는 비자(Visa) 신용카드는 평균 2,000 TPS가 발생하며, 최대 5만 TPS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 전자결제 플랫폼인 페이팔(Paypal)은 약 155 TPS다. 비트코인(7 TPS)은 페이팔보다 약 22배 느린 셈이다.

2세대 블록체인, 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타 암호화폐의 TPS는 어느 정도 될까? 1세대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7 TPS이며, 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ETH)은 15~20 TPS 수준이다. 3세대 블록체인의 대표 주자인 이오스(EOS)는 3,000~4,000 TPS다.

세대가 바뀔에 따라 TPS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플라즈마 같은 부가적인 기술들을 개

발함으로써 느린 TPS를 보완하려 노력 중이다.

주요 암호화폐 & 비자카드 TPS 비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트론	비자카드
TPS	7	15~20	1,000~1,500	56	60	3,000~4,000	2,000	평균 2,000

TPS만 높다고 좋은 블록체인일까? ‘탈중앙화 TPS’ 개념의 등장

최근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TPS가 10만, 100만도 나오는 플랫폼이 있다. TPS가 높으면 결제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탈중앙화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중요 요소를 간과하고 트랜잭션 속도를 높이는 것에만 집중한 프로젝트도 있다. 이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취지인 탈중앙화 속성이 훼손되기도 한다.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 비트코인·이더리움·비트코인캐시·이오스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이다.

그래서 단순 TPS를 넘어서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더리움 공동창업자이자 미국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 창업자 조셉 루빈(Joseph Lubin)은 디코노미 2019 포럼에서 트랜잭션 처리 속도인 TPS 값에 탈중앙화 지수(DQ, Decentralization Quotient)를 곱해 나온 값인 ‘DTPS’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즉 DTPS는 탈중앙화 TPS다.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논할 때 TPS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탈중앙화 요소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 DTPS 개념 도입이 제안된 것이다.

블록체인 TPS는 앞서 언급한 피겨스케이팅의 기술 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겨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이외에도 예술 점수가 중요한 것처럼 블록체인에서도 TPS외에 탈중앙지수가 중요하다. TPS를 높이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블록체인 본연의 취지인 탈중앙화 요소가 약해져 해킹 및 노드 담합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피겨스케이팅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예술 점수 모두 높게 받아야 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에서도 TPS(확장성)뿐만 아니라 탈중앙지수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탈중앙지수(DQ, Decentralization Quotient)



탈중앙지수의 범위는 0에서 1까지다. 완전한 중앙화는 0, 완전한 탈중앙화는 1이다. 블록체인 탈중앙화 정도를 측정해 탈중앙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제안들(지니계수를 사용한 측정, 노드 집중도를 이용한 측정 등)이 있는데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탈중앙지수를 블록체인 평가 척도에 포함하려는 노력은 블록체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메이저 블록체인의 탈중앙지수는 어느 수준일까. 조셉 루빈이 지니계수를 활용해 계산한 것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탈중앙지수는 0.8, 이더리움은 0.7, 라이트코인은 0.5, 트론은 0.3, 리플은 0.2, 이오스는 0.1이다.

이값과 각 암호화폐의 TPS를 곱했을 때 비트코인의 DTPS는 $0.8 \times 7 = 5.6$, 이더리움은 $0.7 \times 15 = 10.5$, 라이트코인은 $0.5 \times 56 = 28$, 리플은 $0.2 \times 1000 = 200$, 트론은 $0.3 \times 1200 = 360$, 이오스는 $0.1 \times 4000 = 400$ 다.

비자카드의 경우 철저한 중앙화 시스템에 의해 결제가 처리되기 때문에 TPS는 높지만 탈중앙지수가 0이어서 DTPS는 0이 된다.

주요 블록체인 탈중앙지수(DQ) & 탈중앙화 TPS(DTPS)
(탈중앙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분산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트론	이오스
탈중앙지수(DQ)	0.8	0.7	0.5	0.2	0.3	0.1
TPS	7	15	56	1,000	1,200	4,000
탈중앙화 TPS(DTPS) [DQ*TPS]	5.6	10.5	28	200	360	400

특정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모든 노드를 프로젝트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00만 TPS든 10만 TPS든 DTPS로 계산을 하게 되면 탈중앙지수가 0이므로 결국 0에 수렴하게 된다. 블록체인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도로 중앙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보안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슈 짚어보기 : 페이스북 코인 중앙화 논란

페이스북이 2020년 발행 예정인 리브라 코인은 중앙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백서에 따르면 리브라 블록체인 출시 후 약 5년 동안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누구나 노드로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달리 노드가 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소수의 노드

만 트랜잭션 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 노드의 2/3를 장악하면 리브라 네트워크 통제가 가능해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드가 적으면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신 중앙화 논란에 휩싸이기 쉽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확장성 기술을 추가하면 탈중앙지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TPS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경우 플라즈마(트랜잭션 결과만 메인체인에 전달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알고리즘) 등의 확장성 기술이 추가되면 비자 카드에 버금가는 45,000 DTIPS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확장성 기술을 추가했을 때 DTIPS는?

$$\begin{aligned} \text{비트코인} &= [0.8 * 7] + [0.8 * 300] = 245 \text{ DTIPS} \\ &= [\text{메인체인}] + [\text{라이트닝 네트워크}]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이더리움} &= [0.7 * 15] + [0.7 * 65,000] + [0.7 * 400] + [0.3 * 10] \\ &= 45,000 \text{ DTIPS} \\ &= [\text{메인체인}] + [\text{플라즈마}] + [\text{스테이트 채널}] + [\text{컨소시엄}] \end{aligned}$$

결론

정리하면 탈중앙화 지수가 낮을 경우(0에 가까울 때) 중앙화 우려가 있고, 이는 곧 퍼블릭 블록체인의 특성인 분산화를 저해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 높은 트랜잭션 속도에만 집중하면 블록체인 본연의 목적(탈중앙화)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니 '예술 점수'에 속하는 탈중앙화 지수도 함께 고려해야 좋은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분산성을 유지하면서 라이트닝이나 플라즈마 같은 확장성 기술을 통한 TPS 개선이 '블록체인 정신'에 더 부합하는 셈이다.

‘폭격’ 맞은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 (미국 상·하원 청문회 종합)



미국시간 7월 16일에 열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청문회에서 페이스북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리브라가 집중 폭격을 맞으며 내년 출시 계획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새벽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 시세가 10% 넘게 폭락했다.

이날 미국 정치인들은 예상한 대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및 선거 개입 스캔들로 인한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페이스북은 위험하다”, “우리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 “새 비즈니스 모델 출시 전에 집(페이스북)을 먼저 청소하라”며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페이스북 신뢰성 문제 외에도 프라이버시 이슈,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규제 준수 등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총괄이자 칼리브라 CEO인 데이비드 마커스는 “페이스북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 (리브라의 거버넌스 기구인) 리브라 협회는 100개 기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페이스북은 리브라 협회의 일원으로,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의원들에게 어필했다. 그는 청문회 내내 미국이 암호화폐 개발, 규제를 주도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가 이끌 것이라며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고 위기감을 조성했다.

페이스북이 과거 경쟁사인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던 것처럼 향후 리브라 협회 파트너사들을 인수해 리브라 프로젝트를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리브라 네트워크는 오픈소스 기반이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던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미국 규제를 피하고자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스위스 제네바에 리브라 본부를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규제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세계 무역기구, 국제결제은행 같은 국제 금융기구 본부가 제네바에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규제를 만족시킬 때까지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커스는 리브라로 월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받을 수 있다”면서도 “리브라는 은행 계좌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브라는 다수 통화 및 국공채 바스켓으로 구성된 준비금(reserve)을 통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며, 규제 준수 차원에서 준비금(예치금) 규모와 리브라 통화 유통량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브라는 익명 서비스가 아니며, 리브라 지갑인 칼리브라는 완벽한 KYC(고객신원 확인절차)를 통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 자금 조달 정황이 파악되면 지갑 주소를 동결,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원 청문회에서 마커스는 리브라를 제외한 페이스북 이슈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넘어갔다. 일례로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리브라 협회 파트너사에게 증권형 토큰인 리브라 인베

스트먼트 토큰을 지급해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배당하지만 리브라 협회를 비영리 기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미국 하원에 미리 발송한 리브라 청문회 발언문에 따르면 겐슬러는 “리브라 협회 회원들은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을 받아 리브라 통화 바스켓에서 발생한 이자를 배당 받는다”며 리브라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가 전날에 이어 17일(현지시간) 다시 한번 미국 의회의 집중 ‘폭격’을 맞았다. 미 의원들은 △리브라에 따른 안보 및 주권 통화에 대한 위협 △페이스북 독과점 불신 △규제 당국과의 소통 부족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브래드 셔먼 (Brad Sherman, 민주당·캘리포니아) 의원은 리브라가 911 테러보다 심각한 잠재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사실상 마약 거래상이나 조세범 등 범죄자에게 익명성 확보가 가능한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꼴”이라며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미국에 가져올 위협은 오사마 빈라덴이 타워(쌍둥이빌딩)를 향해 두 대의 비행기를 날린 것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빌 후젠가(Huizenga) 의원은 “악용 시 통화주권 침해 문제도 제기된다. 법정화폐로 굳이 법정화폐와 비슷한 화폐를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 리브라는 기타 국가의 법정통화도 준비금으로 허용한다. 유로화, 파운드, 엔화 등이 달러화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 페이스북 암호화폐 사업 총책임자는 “미국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디지털 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제에 적합하지 않다. 리브라는 좀 더 나은 결제수단을 지원하고 싶다.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를 살리면서도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새로운 결제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은 최근 페이스북의 사생활 침해 및 보안 우려 확산에 따른 암호 화폐 사업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최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 50억 달러(5조9,00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승인했다. 페이스북은 2012년에도 사생활 보호 문제로 FTC로부터 2,250만 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민주당·캘리포니아) 금융서비스위원장은 “리브라는 협회가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페이스북’의 프로젝트다. 페이스북은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이 페이스북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암호화폐 사업 총책임자는 “데이터 보호에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칼리브라(Calibra, 월렛) 코드 등을 컨트롤 할 권리가 없으며 페이스북과 칼리브라 계정은 호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워터스 위원장은 이어 “규제 당국이 적합한 규제를 내놓을 때까지 리브라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마커

스 총괄은 즉답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규제 승인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답했다. 워터스 위원장은 이에 “이는 약속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당국은 혁신을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페이스북이 어떤 혁신을 이루려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당국은 페이스북을 도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소비자 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의장인 로버트 와이스먼(Robert Weissman) 또한 “페이스북처럼 전 세계적으로 20억 사용자를 보유한 기업은 유일무이하다”며 “리브라 협회는 이미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독점적 카르텔 형성 여건을 갖췄다. 리브라가 페이스북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장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감시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마커스 : 現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총괄

페이스북이 스위스 규제 당국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민주당·캘리포니아)는 “스위스 규제 당국은 리브라 측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페이스북 측은 왜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데이비드 마커스 총책임자는 “백서를 미리 공개한 이유는 당국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통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고 답했다.

캐롤린 멀로니(Carolyn Maloney, 민주당·뉴욕) 의원은 “리브라를 정식 출시하기에 앞서 페이스북 측은 100만 명의 이용자 대상 제한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를 약속할 수 없다면 리브라는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당국이 시대 흐름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현실이고, 암호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당국 차원의 적절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워싱턴은 혁신기술의 무덤이 아닌, 탄생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2019. 7월)



한국블록체인협회

■ 부산, 지역 스테이블 코인 발행 착수

- 1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도를 제치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반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힘
- 부산시는 BNK부산은행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지역 화폐로 1원을 1코인으로 환산, BNK부산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만큼 월렛에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임
- 7월 말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8월부터 부산은행 디지털금융부가 선정 업체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화폐 전용 월렛을 2019년 내 론칭 목표로 개발할 예정임
- 청년수당 등 지역 복지 사업도 자체 암호화폐로 추진할 계획이며, 여기에 시 예산 범위 안에서 합리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넣을 예정이라고 밝힘

■ SK그룹, 미국 블록체인 개발사 ‘컨센시스’ 에 100억 투자

- 1일 뉴스1에 따르면, SK그룹의 지주사인 SK주식회사가 미국 뉴욕에 거점을 둔 블록체인 개발사 ‘컨센시스’ 에 100억 원가량을 투자한다고 밝힘
- 이더리움 창립 멤버인 조셉 루빈이 설립한 컨센시스는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를 위해 조셉 루빈 컨센시스 대표가 2019년 5월 초 한국을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짐
- SK주식회사 관계자는 “컨센시스가 주도하는 펀드에 참여하는 형태”라며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기술 선점 및 투자 기회 확보 차원에

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함. 다만, “투자 규모나 집행 시기, 제휴내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힘

■ 카카오, 코스모체인 운영사 경영권 인수설 ‘사실무근’

- 카카오가 ‘뷰티 블록체인 프로젝트 ‘코스모체인’ 의 운영사이자 뷰티 디앱 ‘피츠미’ 의 개발사인 블랜디드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 인수를 진행했다’ 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함
- 카카오 측은 “블랜디드 지분 인수를 검토했던 것은 맞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투자 여부와 투자 진행 시 인수할 지분 규모 등 구체적인 부분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히면서 “지분 인수와 경영권 확보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일부 매체에 수정 요청을 했다”고 덧붙임
- 코스모체인 측은 공식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오보 기사가 공유되고 있어 조치 중이며, 곧 정정 기사가 공유될 예정”이라며 “많은 투자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공지 사항을 작성 후 공유하겠다”고 공지한 상태임

■ 플러스 토큰 ‘스캠’ 의혹 청와대 국민 청원 등장

- 5일 스캠 의혹을 받는 플러스 토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함. 등록된 해당 청원의 제목은 ‘플러스 토큰 출금 정지 사태 및 먹튀 논란’ 임
- 청원자는 “2019년 6월 28일부터 출금 기능이 막혀 출금 정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다저렇다 뚜렷한 실체가 없습니다. 피해 규모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라고 설명함

- 앞서 지난 7월 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니스는 여러 해외 소식 통을 인용, 플러스 토큰에 대한 스캠 의혹이 확산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에 플러스 토큰 한국 커뮤니티 대표는 코인니스의 보도를 전면 반박하며 “온라인 지갑에서 오프라인 지갑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스터 서버가 업데이트되어 채굴기가 일시적으로 동기화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음
- 블록체인 리서치 전문업체 룡해시에 따르면, 플러스 토큰 측이 현재 온체인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EOS, ETH 자산은 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 부산시, 공공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대응 재정 중점 운용...블록체인 포함

-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가 2020년부터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힘
- 부산시는 지난 5일 ‘2019 재정전략회의’ 를 열고 일자리 1만개+ 창출, 청년정책로드맵 추진,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김해공항 이용 불편 해소), 부산대 개조(지역 혁신성장 동력), 초미세먼지 감축, 물 문제 해결,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창업혁신 플랫폼 구축 등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세움
- 이와 관련해 오거돈 시장은 “시정 역점 분야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물론,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지방비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금융위 “리브라, 상용화 성공 가능성 크다”

- 8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언론에 공개한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 자료를 통해 “발행량 조정 메커니즘이 불명확한 점 등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큰 암호화폐다”라고 평가함

- 이와 관련 금융위는 “리브라 발행량과 준비금과의 상관관계가 모호한 탓에 리브라 발행량이 증가할 경우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며 “만약 리브라가 대규모 ICO를 진행할 경우, 투자금이 몰려 거래소를 통한 투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함
- 반면에 ▲ 페이스북이 24억 명에 달하는 다수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이라는 점 ▲ 글로벌기업과 협회를 구성해 범용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리브라가 기존 암호화폐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존하는 다른 프로젝트보다 상용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위는 진단함

■ LG CNS, 블록체인 기술로 식자재 유통 관리한다

-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LG CNS가 기존 식재료 유통구조에 블록체인 기술을 새롭게 접목하기 위해 ‘세이정보기술’ 과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두 회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플랫폼 개발에 나선다고 밝힘
- LG CNS의 블록체인 기술에 급식 식자재 유통에 특화된 세이정보기술의 사업역량을 융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임
- 세이정보기술은 식품 공급(생산)자 ▲ 품질과 유통을 관리하는 ‘급식센터’ ▲ 이를 구매하는 공공급식시설 간 식재료를 원활히 유통할 수 있도록 돕는 수발주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

- 이에 LG CNS는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 과 기반 기술을 지원하고, 세이정보기술은 플랫폼에서 제공할 구체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협업할 예정으로 양사가 새로 구축할 모나체인 기반 식자재 유통플랫폼에서는 생산부터 가공, 판매, 구매, 소비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공유되어 소비자는 이 음식이 어떤 생산 과정을 거쳐 왔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됨

■ 삼성전자, 이더리움 개발 키트 연말 출시

- 9일 뉴스1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19년 말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DK)인 ‘삼성 블록체인 SDK’ 를 내놓는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지난 3월 공개했던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 가 키스토어 관리에 특화된 개발툴이라면 ‘삼성 블록체인 SDK’ 는 범용 개발툴”이라며 “두 SDK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트워크 모듈’ 의 존재 여부다. 블록체인 SDK는 이 모듈을 활용해 외부 블록체인 노드와 통신하고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문 블록체인 개발사가 아니라도 쉽게 디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삼성전자가 대신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 테스트 대상 기기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시리즈(S10e, S10, S10+, S10 5G)와 하반기 중 출시를 예고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로 제한되었으며,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우선적으로 탑재될 예정임

■ 금융당국, 은행 앞세워 암호화폐 거래소 인증 추진

- 10일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들을 앞세워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등록 등 인증시스템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 중인 가운데 은행권과 공조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됨
- 미디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7월 3일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자금세탁방지 및 암호화폐 관련 부서 실무진과 만나 최근 발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인증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다만, 은행 내부에서는 자금세탁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은행이 져야 하므로 다소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옴

■ 가상화폐 예치금 56억원 사기 2명 구속기소

-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며 고객 예치금 56억 원을 속여 뺏은 (주)K홀딩스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함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1일 K홀딩스 현 대표 A(28)씨를 사기, 전 대표 B(38)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히고, 이들이 갖고 있던 가상화폐 1억 8천만 원 상당과 현금 2,100만 원을 압수하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 보전을 청구함
- A씨와 B씨는 2018년 11월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신도시에 인트비트라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차려 운영하며 2019년 3~4월 무렵 ‘청약 방식 가상화폐 배당’을 명목으로 고객 38명에게서 56억 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음
- 검찰은 지금까지 피해 신고를 한 191명 가운데 38명을 뺀 나머지 피해자 부분도 조사해 A씨와 B씨를 추가로 기소할 예정임

■ 통신사-금융사-삼성전자, 블록체인 전자증명 사업 출범

- 1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와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7개사가 7월 12일 사업 협약식에서 공동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한다고 밝힘
-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탈중앙 식별자(DID) 기반 ‘자기주권 신원지갑’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 핵심임
- 개인이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정보를 스마트폰의 보안 저장 영역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다양한 증명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스스로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서 제출이 가능함

■ 신한카드,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신용결제 시스템 개발

- 15일 머니S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여신 가상화폐 생성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장치(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블록체인상에서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임
- 해당 특허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출원 중이며,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현금성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으로 활용됐지만, 이번 기술을 통해 신용한도 발급부터 일시불·할부 등 신용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됨
- 해당 특허는 신용거래 프로세스 외에도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부가통신업(VAN)이나 결제대행업체(PG) 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결제 프로세스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짐

■ LGU+, 블록체인 통해 휴대폰 보험 처리 절차 간소화

- 15일 블로터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7월 17일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절차를 간소화한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 앱을 출시한다고 밝힘
-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휴대폰 분실 및 파손 시 보험금을 제공해주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는 처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LGU+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실시간으로 LG전자, KB손해보험과 보험금 지급 과정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함
-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보험사에 보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서비스 센터 수리내역, 영수증 등의 정보가 보험사에 공유돼 보험 청구를 위한 여러 수작업 단계와 서류 심사 시간이 줄어들며, 보험금을 당일 수령할 수도 있다고 밝힘

■ KT·농심, 블록체인으로 식품유통이력 안전하게 관리한다

- 1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KT가 NDS(농심데이터시스템)와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안전이력관리 사업 협력을 통해 농축산물 등 식품 유통 분야의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고 밝힘
- 식품의 생산, 가공, 검수, 물류, 판매, 소비의 전 유통 과정이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으며, 식품 유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요·공급 예측을 통한 생산량 조절 등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함
- NDS는 쇠고기 유통 과정의 사육, 도축, 포장, 판매에 이르는 모든 트랜잭션을 IoT 장비 등을 통해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기록하고 검증했을 때 최대 6일이 소요됐던 유통 이력 추적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되는 것을 확인함

- KT와 NDS는 이러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민간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에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 안전이력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 힌트체인, 블록체인 기반 레시피 리뷰 서비스 ‘해떡’ 정식 출시

- 21일 푸드 블록체인 프로젝트 힌트체인(Hintchain)이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 디앱(블록체인 앱) ‘해떡’ 을 정식으로 출시함
- ‘해떡’ 은 2014년 출시해 연관 순위 2위를 유지 중인 레시피 서비스 ‘해떡남녀’ 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힌트(HINT) 토큰을 리워드로 사용하며, 이용자는 취향 정보 제공과 활동을 통해 토큰 보상과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되고 파트너사들은 체계화된 메타데이터를 통해 취향과 수요를 파악,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3분기에는 ‘해떡랭킹’ 이 출시되며 ‘해떡랭킹’ 은 맛집, 레스토랑 리뷰 활동을 힌트 토큰으로 보상받는 서비스로, ‘해떡’ 과 함께 힌트체인 토큰 이코노미의 또 다른 사용처가 될 예정임
- 힌트체인 정지웅 대표는 “해떡-해떡랭킹-힌트 멤버십을 통해 개인의 취향에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파트너사 입장에서든 시장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사용자와 파트너 모두에게 필요한 지속 가능 토큰 이코노미가 구축될 것이다”고 강조함

■ HSBC “한·베트남 블록체인 기반 신용장 거래 첫 성공”

-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SBC가 다국적 화학기업 한국이네오스스틸롤루션과 베트남 플라스틱 가공업체 듀이 탄 간의 블록체인 기반 무역 신용장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힘

- 이는 한국과 베트남 간 첫 디지털 신용장 거래로 HSBC 그룹이 주도한 사례로는 7번째이며, 이네오스스티롤루션이 듀이 탄에 플라스틱 원자재를 수출하는 모든 과정은 ‘볼트론’을 통해 이뤄짐
- 볼트론은 기존 신용장 과정을 디지털화한 HSBC 주도의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플랫폼으로 서류 교환에 통상 5~10일이 걸리는 기존 신용장 거래와 달리 이번에는 24시간 만에 완료하였으며 수정사항도 볼트론을 통해 즉시 반영할 수 있었음

■ 한국금융연구원 “리브라, 전세계 뱅크런 초래 가능”

- 2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자체 정간물 ‘금융브리프’ 최근호를 통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전세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함
-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은 “리브라를 통해 일반 대중이 자국 법정화폐를 낮은 비용은 물론 규제도 받지 않고 주요국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면, 실물경제에 충격 신호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자본도피(capital flight)에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
- 그러면서 해당 기관은 “국제 투기 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외환, 채권, 파생상품, 차익거래 등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Tobin Tax)가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부연함

■ SK텔레콤 블록체인 플랫폼 ‘스톤’ 공개

- 2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블록체인 포럼 ‘BUIDL 아시아 2019’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스톤(STON)’을 최초 공개함
- 스톤 플랫폼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의 스톤코어 중심의 스톤 네트워크와 지갑, DID(분산아이디) 등으로 이뤄진 스톤 솔루션 컴포넌

트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위에 셀프소버린ID (자기주권신원), 상거래, IoT, 보험, 결제 등의 서비스가 붙는 방식임

- SK텔레콤은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기주권신원을 구현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강원 SK텔레콤 소프트웨어연구소 랩장은 “스톤 플랫폼상에서 IoT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관리하고, 쏘카와 같은 공유경제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체인파트너스, 전화·카톡 비트코인 주문 서비스 개시

- 23일 국내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이 비트코인 전화 주문 서비스인 ‘코인케어’ 를 출시한다고 밝힘
- 해당 서비스 사용자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증권사 전화 주문과 유사한 개념이며, 거래소 이용이 어려운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 및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 개발됐다는 것이 체인파트너스 측의 설명임
-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톡으로 ‘체인파트너스’ 계정을 추가한 후 신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을 마친 후 이용할 수 있고, 가입 완료 후 체인파트너스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고 전화로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서비스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임

■ 한국, 블록체인 특허 취득률 1위

- 2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런던 소재 법무법인 위더스 앤 로저스(Withers & Rogers)의 보고서를 인용, 한국의 블록체인 특허 취득률(54%)이 가장 높다고 전함

- 한국에선 542건의 블록체인 특허가 출원돼 이 중 294건이 승인되었으며,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17%), 미국(16%), 유럽(3.4%) 순으로 중국은 출원된 블록체인 특허 중 2% 미만이 승인됨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

-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확정됨.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취지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밝힘
- 부산시가 지난 5월 제출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따르면, 특구의 사업은 금융과 물류, 관광, 데이터 등 4개 분야 9가지로 구성됨
- 중소기업벤처부는 ICO를 비롯한 암호화폐 발행·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특구 내의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산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 밝힘
- 다만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분류돼 발행이 허용된다고 전함

■ 게임위, 연내 ‘블록체인 게임’ 허용 기준 만든다

- 29일 뉴스1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르면 2019년 10월 중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힘
- 게임위에 따르면 2019년 8월 중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 블록체인 게임 기준안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연구가 진행됨

- 게임위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게임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해 등급분류 심사 관련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함
- 국내에선 게임 내 암호화폐 활용이 불법시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더리움과 이오스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보상형 게임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업계에선 태동하는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는 게임 내에서 확보한 암호화폐를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전하면 사행성 이슈가 존재한다”면서 “게임 내 서버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성 코인 발행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 기준안을 빠르게 만들 것”이라고 말함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실명 계좌 계약 연장 잇따라 성공

-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연이어 실명계좌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빗썸은 농협은행의 현장 실사 결과 8개 항목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받고 사실상 실명계좌 계약을 6개월 연장하였고, 농협은행과 거래하는 코인원도 조만간 실명계좌 재계약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업비트도 기업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고, 코빗 역시 신한은행과 긍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미디어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명 거래 계좌의 연장에 청신호가 들어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어 실명계좌 보유 여부에 거래소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함

해외 정책 및 산업동향

[2019. 7월]

- 미국
- 베네수엘라
- 영국
- 스위스
- 프랑스
- 독일
- 중국
- 일본

한국블록체인협회

미 국

■ 페이스북, 뉴욕주에 비트라이선스 신청

- 2일 서울경제가 로이터를 인용, 페이스북 자회사 칼리브라가 뉴욕주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비트라이선스를 신청했다고 보도함
- 뉴욕은 암호화폐 사업자를 위한 비트라이선스 제도를 201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당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뉴욕주에서 영업 중이던 10개 이상의 암호화폐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기도 함

■ 미국 CME 비트코인 일일 선물 거래량 역대 최대...17억 달러

- 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6월 2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6월 2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1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일일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힘
- 이는 이전 일일 최대 거래량보다 30% 많은 수준임

■ IBM, 블록체인 기반 은행담보 디지털화 프로젝트 출시

- 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BM이 은행담보를 디지털화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라이곤'(Lygon)'을 출시하였다고 전함
- IBM은 라이곤 프로젝트를 통해 은행담보의 발행 및 관리 등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사기 위험을 줄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추며, 투명성과 보안성을 제고할 계획임

- 라이곤은 IBM이 4개 오스트레일리아 금융서비스 업체와 공동 개발했으며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커먼웰스 बैं크, 센터그룹, 웨스트팩 등이 지원하며, 라이곤은 향후 8주 동안 소매용 부동산 임대 고객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됨

■ 페이스북·구글·트위터 ‘암호화폐 광고 금지’ 에 사상 최대 집단소송

- 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베인크립토에 따르면, 호주의 소송대행업체 ‘리버티(JPB Liberty)’가 페이스북·구글·트위터의 암호화폐 광고 금지에 대해 5,000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 1998년 미국 담배업계를 상대로 한 2,060억 달러 규모 집단소송의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로, 미디어는 2018년 1월 30일 페이스북이 모든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한 후 암호화폐 시장가격이 53% 하락했으며, 구글의 3월 14일 광고 금지 후 30% 하락, 트위터의 3월 27일 광고 금지 후 23% 추가 하락이 발생했다고 전함
- JPB 리버티는 “최신 정보에 민감한 암호화폐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특히 페이스북이 6월 26일 일부 광고를 다시 허용하는 등 암호화폐 광고 금지가 의도적인 자사 리브라(Libra) 프로젝트의 ‘경쟁자 죽이기 정책’ 이었다”고 덧붙임

■ 미국 국세청, 수주 내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의원 20명의 요청에 따라 수주 내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는 암호화폐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미 의회는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불확실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최소 3개 이상 발의할 계획이라 전함

■ 미국 SEC·FINRA, 디지털 자산 증권 커스터디 관련 성명 공동 발표

-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가 SE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자산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 브로커·딜러에게 적용하는 증권법과 금융 산업 규제 적용 관련 성명을 공동 발표함
- 성명서는 디지털 자산 증권 브로커·딜러가 ‘투자자보호법(Customer Protection Rule)’ 으로 알려진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금융책임 규칙’ 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투자자보호법은 고객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할 것을 요구하며 불건전한 사업 관행을 감시하고 투자자 손실을 예방한다는 설명임

■ 미국 국세청, 전산 모니터링 통해 BTC 납세 문제 개선

- 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슬레이트가 미국 국세청(IRS) 산하 기관 보고서를 인용, IRS가 향후 오픈 소스 검색, 전산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납세자 비트코인 거래 여부 및 비트코인 잔액 변동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함
- IRS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 탈세를 방지하고 비트코인 납세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며, IRS는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통한 암호화폐 관련 앱 다운로드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 BTC 혹은 ETH 주소 검색을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플랫폼 게재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전문가 채용...자체 코인 출시 가능성

- 10일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사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함

- 골드만삭스의 내부 채용 문건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사내 엑셀러레이팅 팀으로 지정될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 매니저(Digital Asset Project Manager)의 채용을 진행 중이며, 기존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파트와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뉴욕 검찰총장, 테더·비트파이넥스 조사 보고서 공개

- 1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뉴욕 검찰총장실(New York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NYAG)이 테더·비트파이넥스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였다고 밝힘
-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가 뉴욕주 내에서 불법으로 증권을 발행했다는 내용의 골자로 NYAG는 테더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준비금을 임의로 투자 및 대출에 사용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USDT가 1:1 비율의 달러로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USDT가 사실상 임의로 발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포함
- NYAG는 28건의 증거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대법원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의 회계 문서 공개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디어는 진단함

■ 미국 SEC, '유나우' Reg A+ 토큰 판매 승인

- 1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유나우(YouNow)의 Reg A+ 조항을 통한 합법적 토큰 판매를 승인했다고 전함
- Reg(Regulation) A+는 SEC가 연방 증권법에서 예외로 둔 조항으로, 스타트업이 엄격한 등록 요건을 면제받아 기관과 개인 투자자로부터 연 5,000만 달러 한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조항임

- SEC의 인가를 받은 유나우는 2,200만 달러 규모의 유틸리티토큰 프롭스(Props)를 프리세일 했으며 사용자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1억 8,700만 개의 토큰을 배분할 예정임. 앞서, SEC는 최초로 블록스택의 Reg A+ 토큰 판매를 승인한 바 있음

■ 트럼프 “비트코인 불법적 활용...리브라 신뢰성 없어” (종합)

-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며,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다.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 자산은 약물 거래와 다른 불법적인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인 ‘리브라’ 도 기반이 약하고 신뢰성이 거의 없다. 만약 페이스북과 다른 암호화폐 업체들이 스스로 은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라이선스와 모든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는 단 하나의 통화가 있으며, 그것은 믿을 수 있고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그것은 단연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통화로, 항상 유지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달러다”라고 말함

■ 미국 상원위원회, 블록체인 진흥법 승인...블록체인 정의한다

- 12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미국 기술 미디어 CNET를 인용해 미국 상원 무역, 과학, 교통 위원회가 블록체인 진흥법(Blockchain Promotion Act)을 승인했다고 보도함
- 이에 따라 미 상무부 내 블록체인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조직되고 조직 후 1년 내에 실무그룹은 블록체인 정의와 관련한 보고서

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연방 기관, 전자기 스펙트럼 (electromagnetic spectrum) 정책, 기타 잠재 애플리케이션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블록체인 실무그룹은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연방 기관 대표자들과 비정부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되며, 비정부 참여자에는 IT 제조업체, 공급 업체, 소프트웨어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판매업체, 전문가가 포함됨

■ 미국 의회, IT기업 금융 진출 제한 법안 검토...비트코인 대형 호재 분석

- 15일 블록체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미국 의회의 대형 IT 기업 암호화폐 출시 금지 움직임이 비트코인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안토니 폼필리아노 모건 크릭 디지털 창업자를 인용해 “대형 IT 기업 금융 산업 분리 법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해당 소식은 지난 몇 주를 통틀어 비트코인에는 최고의 호재다”라고 전함
- 제임스 토라도 블록타운 캡 파트너는 “정부는 지금까지 법정화폐 대체품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해왔다. 이들은 리브라에도 똑같은 전략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르다. 법정에 세울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20세기 중반 금에 대해 취했던 조치처럼 비트코인 소유를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함

■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 CFTC 위원장 취임

- 1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국제 이슈 담당 차관보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신임 위원장을 맡는다고 보도함

- 암호화폐 관련 그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전임자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는 타버트에 대해 "디지털 시장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이 있고, 규제 기관을 이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함
- 타버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앞서 국제기구 금융안정 위원회(FSB) 소속으로도 활동했고, FSB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미국 재무장관 “리브라 등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위법 행위 용납 못 해”

- 1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의 기자 Nikhilesh De의 트위터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Steve Mnuchin) 미국 재무장관이 “암호화폐는 사이버 범죄, 탈세, 불법 마약,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의 수단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 당국은 암호화폐 규제 관련 최전선에 서 있으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위법 행위는 물론, 불법 활동 지원 목적의 암호화폐 사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그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마땅히 본인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은행보안규정(BSA)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리브라를 비롯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금융시스템 보호 및 기술 남용을 방지하는데 가장 높은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나스닥·시티그룹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 중단

-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스닥과 시티그룹이 발표했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현재 추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남

- 2년 전 양사는 개인 증권거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더 효율적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인한 효용 대비 비용이 더 많이 들어 파일럿 단계 이후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됐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함
- 로이터 통신은 지난 4년간 발표된 대기업 블록체인 프로젝트 33개를 검토한 결과 파일럿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례가 많았으며, 파일럿 단계를 거쳤더라도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IMF “디지털 화폐, 은행·현금 자산 대체한다”

- 1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이더리움월드뉴스가 IMF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금융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 은행과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디지털 화폐에 의해 밀려날 것이라고 전하면서, 해당 보고서는 법정 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전망을 높게 평가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화폐를 완벽히 대체할 것으로 전망함
- 이와 관련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는 “블록체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것”이라며 “이미 적지 않은 국가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높게 보고 기술 도입에 나서기 시작했다. 금융시스템 내 안정적인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해 신뢰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미국 재무장관 “초강력 규제로 ‘디지털판 스위스 은행’ 막겠다”

- 18일 CNBC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Steve Mnuchin) 미국 재무장관이 CNBC 경제 프로그램 ‘스쿼크박스(Squawk Box)’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이 스위스의 비밀계좌제도와 같이 되지 않도록 ‘초강력(very, very strong)’ 규제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그는 “사용자들은 적법한 용도로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한다”며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불법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스위스의 비밀계좌제도 역시 각국 규제 당국의 조사를 피하고 탈세의 용도로 악용되면서 전 세계 정부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고 설명함
- 또한 므누신은 ‘달러도 불법적인 용도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이 불법적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합법적인 통화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질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달러(cash)가 항상 자금세탁에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우리는 미국 금융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달러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범죄자들과 싸우고 있다”고 부연함

■ 백트,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회에서 BTC 선물 거래 출시 기념식 진행

- 20일 여러 외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가 7월 22일 시범 서비스를 앞두고, 7월 18일 뉴욕증권거래소 이사회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 출시 기념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댄 모어헤드 판테라 캐피탈 CEO는 “우리는 뉴욕 거래소 이사회실에 앉아 있다.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였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미디어는 “이번 행사가 열렸다는 것은 백트가 한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범 서비스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한다”며 “당국과의 오랜 협상 과정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텔레그램, ‘그램’ 상표권 분쟁서 승소

- 2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이 텔레그램 토큰 ‘그램(Grams)’의 상표권 분쟁에서 텔레그램의 손을 들어줌
- 미디어에 따르면 텔레그램 토큰 그램의 출시를 앞두고 블록체인 스타트업 란타(Lantah)가 ‘Grams’라는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신청했고, 텔레그램은 법원에 ‘GRAM’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재판부는 란타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텔레그램 손을 들어줌
- 란타는 해당 판결이 채량권 남용이라고 주장,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텔레그램은 앞서 ICO(암호화폐공개)를 위해 공개한 문서에서 ‘Grams 구매 계약서’라고 명시했다. 텔레그램은 Grams 토큰 판매를 위해 다수 미디어에 해당 자료를 이미 제공했다”고 설명하며 란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

■ 미국 FINRA, 암호화폐 사전 협의 의무 규정

- 22일 미국 법률 전문미디어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가 새로운 규제 지침(Regulatory Notice 19-24)을 발표한 가운데, 회원사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 진행할 때 FINRA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됨
- 관련 조항 대상 서비스는 각각 ▲ 디지털 자산으로 구매, 판매 등을 진행하는 서비스 ▲ 디지털 자산 관련 펀드 설립 및 운영 ▲ 분산원장 기술 혹은 블록체인을 사용한 서비스 ▲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 등임

■ 뉴욕주, 디지털화폐 TF에 업계 대표 6인 선출

- 2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주가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한 TF팀에 참여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 대표 6명을 선정함

- 선발된 대표는 컨센시스(ConsenSys)의 창업자 조셉 루빈(Joseph Lubin),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카운실(Global Blockchain Business Council)의 CEO 산드라 로(Sandra Ro), 미 국방 전문가 야야 파누시(Yaya Fanusie),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Blockchain @ Microsoft)의 공동창업자 요코 로도스(Yorke Rhodes), 리플(XRP)의 규제 관계 총괄 라이언 자고네(Ryan Zagone), 카르도조(Cardozo) 로스쿨 법학 교수 아론 라이트(Aaron Wright)임
- 이번 TF팀은 오는 2020년 12월 15일까지 암호화폐 산업 현황 보고서를 작성, 정부에 ‘암호화폐의 규제, 정의, 사용 방안’ 을 제안할 계획임

■ VISA CEO “VISA, 리브라 협회에 도움 된다”

- 2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알 켈리(Al Kelly) 비자(Visa Inc.) 최고경영자가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기반 결제시스템 리브라에 비자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함
- 이와 관련해 그는 “비자가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파트너십이 전부지만, 우리는 분명한 관심을 표현했다”고 덧붙임

■ 뉴욕타임즈 “블록체인으로 가짜 뉴스 방지”

- 2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타임즈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짜 뉴스 방지에 나선다고 밝힘
- 뉴욕타임즈는 IBM 블록체인 개러지(garage)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기업용 블록체인을 활용, 잘못된 정보나 선동성 보도를 판별한다는 방침임

■ 미국 SEC, 첫 ERC-20 토큰 합법적 발행 및 판매 허용

- 26일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 (SEC)가 현지 블록체인 게임 업체 포켓폴 오브 쿼터스(PoQ)에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발송, PoQ가 발행한 쿼터 토큰의 합법적 발행 및 판매를 허용함
- 이는 PoQ가 예외적으로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토큰 발행 및 판매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하며, 2019년 4월 비즈니스 여행 스타트업 턴키 젯에 비규제조치 의견서가 발급된 이후 약 4개월 만임
- 쿼터 토큰은 이더리움 ERC-20 기반 토큰으로, 사실상 미 당국으로부터 첫 합법적 판매를 인정받은 ERC 기반 토큰이 되었으며, PoQ가 유일한 판매처로 설정되어 이를 통해 2차 시장에서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임

■ 미국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내역 신고 ‘경고장’ 발송

- 2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보유 자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라’ 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 시작하였다고 전함
- 이달 말까지 1만 명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 납세자에게 서한을 발송한다는 방침으로 척 레티그(Chuck Rettig) 국세청장은 성명을 통해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 분석 활용도를 높이는 등 명확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의무를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힘

■ 외신 “미국 무역 제재국, 깃허브 접속 제한”

- 29일 블록체인 미디어 체인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 제재 영향으로 크림 공화국, 쿠바,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깃허

브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크림 공화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개발자 Anatoliy Kashkin은 깃허브로부터 미국 무역 정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함
- 미디어는 Anatoliy Kashkin 외에 크림 공화국에 거주하는 다른 개발자들도 미국 제재 영향으로 깃허브 접속이 불가하다고 전하고, 이란 개발자 Hamed Saedi 또한 “깃허브 계정이 막혔으며 깃허브가 나를 핵무기 개발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블로그를 통해 밝힘
- 깃허브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개발할 수 있는 버전 관리 시스템인 깃(Git)에 프로젝트 관리 지원 기능을 확장해 제공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임

■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 무산 가능성 정식 언급

- 30일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암호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다수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다고 보도함
- 페이스북이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리브라 출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실제로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서 “리브라는 다수의 국가 관할 정부 및 규제 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심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심의는 지속할 것이다. 또한, 시장은 리브라와 같은 새로운 화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상당히 큰 불확실성을 느낀다. 이에 리브라 또는 관련 서비스가 예정된 시간에 제공되지 못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초기 경험이 부족하다. 이는 우리가 이 같은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힘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 정부, 현지 최대 은행 페트로 서비스 지원 지시

- 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현지 최대 은행 베네수엘라 은행 (Banco de Venezuela) 전 지점이 현지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함
- 페트로는 원유 및 천연자원을 담보로 하는 암호화폐로,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베네수엘라 은행 데스크만 약 790개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 미디어는 업계 전문가를 인용 “이는 페트로 등 암호화폐가 전국 범위에서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로 보인다”고 전함

■ 베네수엘라, BTC로 항공세 부과...미국 제재 우회 목적

- 2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베네수엘라 현지 미디어를 인용 “베네수엘라 주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달러를 조달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해당 미디어는 “이를 위해, 이들은 ‘제트맨페이(Jetman Pay)’ 라는 항공세 정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현재 해당 앱을 통해 항공사들로부터 비트코인을 항공세로 받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홍콩, 러시아, 차이나, 헝가리 등 국가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전해 자국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부연함

영 국

■ 외신 “영국 FCA, 개인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파생상품 제공 금지 협의안 공개 예정”

- 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암호화폐 파생상품 제공 관련 금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 투자자들에게 차액거래상품 제공 제한(Restricting contract for difference products sold to retail clients)’ 문서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은 BTC 선물이나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을 잠재적으로 금지하는 협의안(CP)을 공개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영국 금융감독청은 “곧 발표될 협의안의 새로운 규제들이 암호화폐 차액거래의 최종 규제 법안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 정부, ‘검은 돈’ 단속 강화...암호화폐 범죄자 포함

- 12일 영국 현지 미디어 미러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검은 돈(Dirty money) 단속에 600만 파운드 이상을 투입할 것이며 단속 대상에는 암호화폐 범죄자도 포함된다고 발표함
- 이를 위해 영국 각 부처 장관, 사법기관, 기업들은 사기꾼, 자금 세탁업자, 뇌물 등과 싸우기 위한 공동 계획에 합의함
- 영국 기업들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의심 활동 보고서(Suspicious Activity Report·SAR)를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NCA)에 제출해야 하며, 검은 돈 의심 정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힘

■ 영국 금융당국,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 예정

- 1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기관(FCA)이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 공고 2건을 게시, 정보 서비스팀, 금융범죄 부서 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전담팀에서 암호화폐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영국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만간 암호화폐 종합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함

■ 영국 브렉시트 우려 고조...BTC 투자 대안 각광

- 2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브렉시트(영국 유럽 연합 탈퇴) 강경파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 장관이 차기 총리로 선출되면서 BTC가 투자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함
- 미디어는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합의없는 영국유럽연합 탈퇴)’ 의지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파운드화 급락, 물가 상승, 경제 악화 등 우려가 제기됨. 투자자들은 대체 투자처로 BT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영국 BTC 관련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전함

스 위 스

■ 네슬레, 블록체인 기반 식품 공급망 시스템 도입

- 2일 스위스 식료품 기업 네슬레(Nestle)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 오픈SC(OpenSC)와 협력해 투명한 공급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힘
- 네슬레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협업을 통해 기존 공급망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완전히 투명한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식음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임
- 네슬레 S.A.의 마그디 바타토(Magdi Batato) 부사장은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책임감 있게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길 바란다. 오픈소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소비자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스위스 온라인은행 두카스카피, 현지 암호화폐거래소 SCX와 파트너십

- 11일 온라인 경제 전문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소재 온라인은행 두카스카피(Dukascopy)가 스위스 암호화폐거래, Swiss Crypto Exchange)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보도함
- 이에 따라 두카스카피 사용자들은 유로화, 스위스 프랑을 사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으로 이와 관련해 두카스카피의 CEO 겸 창업자인 안드레 두카(Andre Duka)는 “법정화폐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합하는 것은 두카스카피의 도입과 유동성 증가를 위한 적절한 전략”이라고 말함

■ 스위스 규제당국 “리브라 규제 범위 검토..세부 정보 필요”

-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데이터보호정보위원회(FDPIC)가 “7월 11일 리브라 협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FDPIC는 “리브라의 자문 및 규제 적용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프로젝트 세부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프랑스

■ 프랑스 금융 당국, 새 규제 적용한 ICO 최초 승인 전망

-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당국이 신규 디지털 코인 규제 방침을 적용한 ICO를 곧 승인할 전망이다
- 이달 말 시행될 신규 규제 방안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자본 요건과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당국은 “3~4개 ICO 후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수탁 업체, 펀드매니저 등과 협의 중”이라며 “프랑스는 선도자로서 법, 과세 등 제도적 틀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리브라 리스크 억제, G7 재무장관 회의 우선 과제”

-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페이스북 리브라를 비롯한 새로운 통화가 일으킬 리스크 억제를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리브라가 주권 통화가 돼선 안 된다”며 이것이 리브라의 한계선(red line)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7월 11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 또한 리브라 규제가 G7 재무장관 회의의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바 있음

독 일

■ 독일 주요 정당연합,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관심 표명

- 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인크립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최대 정당연합 중 하나인 기독교민주연합(CDU)·기독교사회연합(CSU)이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관심을 표명함. 이는 블록체인을 통해 중앙은행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라고 전함
- 특히 6월 18일 페이스북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백서가 발표되고 불과 며칠 만에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 가능성이 제기돼 업계의 관심이 쏠림
- 연합은 ‘디지털 미래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the digital future)’라는 계획을 발표하며 독일이 블록체인 기술 규제·채택을 위한 글로벌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과 자금 지원을 촉진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고안중이라고 밝힘
- 나딘 쇤(Nadine Schön) CDU/CSU 디지털 정책 부총괄은 독일의 규제 접근법이 비트코인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디지털 증권, 디지털 신원인증 등 다양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독일 암호화폐 채굴 업체, 채굴기 5,000대 인수 계약 체결

- 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암호화폐 채굴 업체 노던 비트코인(Northern Bitcoin)이 비트메인과 카나안으로부터 약 5,000대의 채굴기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 현재 약 55PH/s 상당의 해시파워를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으로, 노던 비트코인 측은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채굴기 인수는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 확장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힘

■ 독일 중앙은행 집행이사 “규제 내 암호화폐, 금융 안정성에 위협 안돼”

- 1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버르크하르트 발츠(Burkhard Balz) 독일 중앙은행 집행 이사가 7월 9일 유럽 의회에서 “암호화폐 자체는 금융 안정성에 위협요소가 아니다”라고 진단함
- 동시에 그는 “하지만 규제 당국의 권한 범위 밖이나 국제 표준이 없는 곳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독일 중앙은행 “정부 리브라 규제, 기술적으로는 중립 지켜야”

- 2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중앙은행이 “정부의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에 대한 규제가 기술적 측면에서는 중립(technology-neutral)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침
- 독일 중앙은행은 이와 관련해 “비록 규제 측면에서 리브라와 관련해 불확실성과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함

중 국

■ 리브라 차이나, 세계 최초 리브라 블록체인 브라우저 출시

- 1일 중국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PA뉴스에 따르면, 리브라 차이나(Libra China) 커뮤니티가 세계 최초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블록체인 실시간 브라우저인 ‘리브라블록(LibraBlock)’ 을 출시했다고 전함
- librablock.io에서 리브라 테스트넷, 메인넷(출시예정)의 모든 블록 데이터와 단일 트랜잭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와 관련 리브라 차이나 총괄은 “리브라 블록 브라우저는 오픈 소스로 제공할 것이며, 월렛, 테스트넷 API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 리브라 차이나 : 비트코인골드(BTG) 창시자 인향과 BTG 중국 커뮤니티 총괄 등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리브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리브라 홈페이지에서는 리브라 차이나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정보를 찾아볼 수 없음

■ 중국 중앙은행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 10개월간 5조원 처리

- 4일 중국 매체 21세기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 주도로 개발한 ‘선전만 경제 지역 무역금융 블록체인 플랫폼’ 이 2018년 9월 출시 이래 300억 위안(약 5조 원) 이상의 대외 결제 업무를 온체인으로 처리했다고 전함
- 선전시 28개 은행, 483개 지점이 해당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생태계를 중국 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홍콩 블록체인 무역 금융 플랫폼 등 역외 플랫폼과도 연동한다는 방침임

■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 초안 공개...9월까지 의견 수렴

- 5일 중국 유력 미디어 차이징왕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7월 5일 중국인민대표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초안)’을 공개하였다고 밝힘
- 초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9월 2일까지 암호화 산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초안 제12조에 따르면 개인 혹은 단체는 타인의 암호화 정보를 탈취할 수 없으며 불법적으로 타인의 암호 보안 시스템에 침입할 수 없음. 암호화 정보를 이용한 국가 보안, 사회 이익, 타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활동은 일절 금지됨
- 그 외에도 초안 제3장은 ‘상용화 암호 관련 주요 제도’를 명시하고 암호화 산업 발전 및 규범화를 강조했으며, 기술 육성을 위한 당국 부서의 적절한 역할 수행, 규제 최소화 등을 강조하고, 더불어 ‘핵심 암호’, ‘일반 암호’, ‘상용화 암호’를 명확히 분리, 개별적 관리감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중국 최대 증권사 “리브라, 뚜렷한 가치 있는 화폐”

- 6일 중국 최대 증권사 중신증권이 페북코인 리브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리브라는 뚜렷한 사용가치를 가진 화폐”라고 분석함
-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비교해 리브라는 화폐로서의 잠재력이 더욱 크다”며 “리브라가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리브라가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작용을 하게 되면, 글로벌 자금 흐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 토큰 프로젝트, 상반기 11.8억 달러 조달

- 12일 이더리움월드뉴스가 인와라(Inwara) 데이터를 인용, 2019년 상반기 중국계 토큰 프로젝트가 11억 8,0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전함

- 이는 올해 토큰 판매로 조달한 액수의 33.2%에 해당하며, 2019년 들어 새로 출시된 토큰은 583개에 달하는데, 중국 프로젝트는 가장 큰 액수를 조달했으나 실제 출시한 토큰은 30종에 그침
- 미국이 66종(2.55억 달러 조달), 싱가포르가 52종(2.32억 달러 조달)을 출시한 것과 대비됨
- 토큰 세일 방식 중 69%가 ICO였으며, 21%는 IEO, 10%는 STO였으며, 상반기 ICO는 2018년 대비 74% 감소하고, 조달액은 46% 줄었음

■ 중국 금융당국, 은행·보험사 업무에 블록체인 적극 도입 지시

- 16일 중국 유력 경제 미디어 중국증권에 따르면,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은보감회)가 최근 현지 대형 은행 및 보험사에 블록체인 등 기술을 적극 도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도함
- 관련 문건에 따르면 당국은 현지 금융 업체들에 자금조달, 결산, 재무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으며, 동시에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적극 사용할 것을 지시함

■ 알리페이 HK, 중국 전 지역 서비스 확장...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지원

- 22일 중국 유력 미디어 신화사에 따르면, 현지 대표 모바일 간편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의 홍콩판 버전인 알리페이HK(Alipay HK)가 최근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모바일페이 서비스 범위를 기존 웨강아오 다완취(광둥·홍콩·마카오)에서 중국 전 지역으로 확장한다고 밝힘
- 알리페이HK는 단순 결제 서비스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 저스틴 선, 워런 버핏 오찬 취소 사건 타임라인

-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가 7월 25일로 예정돼 있던 워런 버핏과의 오찬을 취소한 것과 관련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니스가 타임라인을 정리함
- 23일 오전 6시경 : 저스틴 선이 SNS(웨이보)에 “갑작스러운 신장 결석으로 치료를 받게 돼 워런 버핏 회장과와의 오찬을 취소했다. 글라이드 재단 기부는 완료했다”고 전함
- 23일 오전 6시 28분 : 트론 재단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저스틴 선의 신장 결석으로 워런 버핏과의 오찬이 연기됐으며, 양측은 향후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힘
- 23일 오전 : 중국 미디어들이 21세기경제보도의 보도를 인용 워런 버핏과의 오찬을 취소한 저스틴 선의 트론이 중국 내 불법 ICO 및 돈세탁, 트론 제휴 앱 ‘PEIWO’의 음란 콘텐츠 이슈, 트론 상위권 DAPP을 점령한 도박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제에 연루돼 있다고 전함
- 23일 오후 : 저스틴 선이 SNS(웨이보)를 통해 트론은 2017년 9월 중국 정부의 ICO 제재에 적극 협조했으며, 돈세탁 등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PEIWO 음란 콘텐츠는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
- 23일 16시 53분 : 중국 미디어 신징바오 기자에게 저스틴 선이 워런 버핏 오찬 취소 사실을 재차 알렸으며, 연기된 게 아니라고 밝힘

■ 중국은행, 비트코인 소개 콘텐츠 배포..4대 은행 중국 처음

- 26일 중국 4대 은행 중 한 곳인 중국은행이 ‘급등하는 비트코인, 한번 알아보자’라는 제목의 만화 형식의 콘텐츠를 배포함

- 해당 콘텐츠에는 비트코인의 원리, 역사, 채굴 매커니즘, 저스틴선 트론 창업자의 워런버핏 점심식사 경매 낙찰, JP모건 CEO의 비트코인 관련 발언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었으며, 중국은행 공식 앱을 통해 볼 수 있고, 7월 18일 오후 6시 기준 19만 뷰를 기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현지 금융 업계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유명한 중국 4대 은행 중 한 곳인 중국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비트코인을 자세하게 소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중국은행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함

일 본

■ 일본 참의원, 암호화폐 세제 개정 청원서 국회 제출...채택 실패

- 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켄지 후지마키(Kenji Fujimaki)가 국회 회기말(6월 26일) 전 암호화폐 세제 개정에 관한 국민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채택에 실패했다고 전함
- 청원서에서는 △현 암호화폐 거래 이익 종합 과세율(최고 55%)을 20%의 분리 과세로 개정 △암호화폐 거래 손실액 이월공제 허용 △암호화폐 매매 비과세 △암호화폐 소액 결제 비과세 등을 요구함
- 후지마키 의원은 “청원서는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했지만 정부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트위터 를 통해 밝힘

■ 일본 부총리, “리브라 대응, 국제공조 시급”

- 2일 일본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내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폐북 코인 리브라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이날 아소 부총리는 “각국 규제당국이 리브라 관련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공조가 시급하다”고 전 하면서, 그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리브라가 규제에 부합한다면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지금 당장 금지할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임

■ 일본 SBI 그룹 회장, ‘STO보급화’ 암호화폐 단체 설립 예정

- 4일 일본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 금융 대기업 SBI 그룹의 키타오 요시타카(Yoshitaka Kitao) 회장이 새로운 암호화폐 단체 설립을 준비 중이고, 증권형토큰발행(STO)의 건전한 보급화를 해당 단체의 목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라고 밝힘
- 키타오 회장은 임기 만료에 따라 6월 26일부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협회(JVCEA) 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음

■ 일본은행 “CBDC, 화폐정책에 도움 안돼”

- 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미야 마사요시 일본은행 부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에 반대한다”고 밝힘
- 이와 관련 그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일환으로 CBDC를 발행한다면, CBDC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계와 기업의 현금 보유량을 줄여야 한다”며 “하지만 이 과정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일본 블록체인협회,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기구 IDAXA 합류

- 9일 일본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워치에 따르면, 일본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의 카노 유조 협회장이 정례회의에서 “최근 국가 간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 정책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기구 IDAXA에 합류했다”고 발표함
- IDAXA는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V20 회의(G20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열린 각국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정상회의)에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규제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규제당국 간의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출범한 글로벌 규제기구임

■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산하 기업,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인증서 발급

- 21일 니혼케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AVEX의 자회사 Avex Technologies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힘
-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음원, 캐릭터 상품 등 디지털 콘텐츠에 인증서를 부여,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으로 창작자 권리를 보장,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게 하며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한다는 설명임

■ 일본 대형 종합상사, 블록체인 기반 주택 임대 계약 플랫폼 개발 중

- 23일 일본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대형 종합상사 스미토모상사가 비트플라이어 블록체인(bitFlyer Blockchain)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주택 임대 계약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는 방침임
- 이와 관련 스미토모상사는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주택 임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변조를 방지하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앞으로, 임대인이 주택 방문 예약, 계약 체결, 입주 절차 진행, 비용 지불, 계약 갱신 등을 원스톱으로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함

■ 일본 JCBA, 암호화폐 수익 분리 과세 및 부분 비과세 청원서 제출

- 25일 일본 현지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위치에 따르면, 사단 법인 가상화폐 비즈니스 협회(JCBA)가 24일 2020년 세제 개정안에 ‘암호화폐 수익 분리과세 및 부분(일정 규모 이하 소액) 비과세’ 관련 청

원서를 제출했다고 현지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투워치가 보도함

- 앞서 일본 의회에서 통과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이하 금상법이라 함) 개정안의 2020년 4월 시행이 전망됨에 따라, 암호화폐는 금상법의 규제를 받게 됨
- 이에 JCBA는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역시 기타 금융상품 선물 거래와 마찬가지로 20%의 분리 과세 등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함. 이하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임
 1.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20%의 신고 분리 과세를 시행해야하며, 투자자의 손실액에 대해서는 이듬해부터 3년간 파생상품 거래 수익에서 이월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2.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로 거둔 이익이 연간 20만 엔을 넘지 않을 시 소액 비과세 제도를 적용한다.

회원사 동향

[2019. 7월]

한국블록체인협회

에이치닥테크놀로지, 한국지점 대표에 주용완 前 KISA 블록체인 총괄
현대 BS&C 정대선 사장이 설립한 블록체인 기술기업 에이치닥테크놀로지가 주용
완 블록체인 비즈니스 디렉터를 한국 지점 대표로 선임

지난 4월 블록체인 비즈니스 디렉터로 에이치닥에 합류한 주 대표는 2000년부
터 2019년까지 20여 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재직하며, 인터넷산업혁신
단장, 인터넷보안센터장, 인터넷기반본부장, 정보보호산업본부장 등을 역임

특히, 주 대표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설정을 지원하
고, 핵심 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추진하는 등 KISA의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함



BLOCKCHAIN 동향과이슈

2019.8월 제10호